

# Alain의 死者觀과 祖上崇拜觀 研究

鄭 鳳 九\*

- |                  |              |
|------------------|--------------|
| 序                | IV. 人間과 動物   |
| I. 죽은 사람들은 모두 聖者 | V. 東洋思想과의 對比 |
| II. 祖上和 英雄       | 結論           |
| III. 紀念祭와 紀念物    |              |

## 序

Alain 文學의 主軸을 이루는 Propos 文學은 그 內容이나 篇數로 보아 多樣多數하며 그래서 Alain 을 말하는 研究家들이나 評者들이 흔히 Alain 의 文學을 定義하기 어렵다느니 또는 規定지을 수 없다느니 한다. 그러나 筆者는 Alain 文學의 그와 같은 多樣多數한 內容 篇數 속에서 Alain 特有의 特徵을 본다. 그것은 그의 批評眼이라고 할런지 그의 文學方法 또는 文學態度라고 할런지 그런 것의 特異性이다.

Alain 은 그의 作品 속에서 항상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것을 논하고 찾아내며 그것의 정당성 또는 타당성을 발견하고 분석하므로써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

本稿에서 主題로 삼은 Alain 의 死者觀이나 祖上崇拜觀도 결국 그와 같은 Alain 의 批評眼的인 思想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이 지니는 죽은 사람들에게 對한 觀念, 또는 죽은 사람과의 關係等等 그런 것을 根元에서 分析觀察하며 肯定的인 側面을 내세우고 있다. 祖上崇拜觀에 對한 分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lain 의 死者觀이나 祖上崇拜觀은 그것이 바로 Alain 自身の 생각 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그것과의 相關關係에서 Alain 이 指摘하고 또 定義하는 觀念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사람들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간에 어떤 事象 속에 內在하는 眞理와 正當性 또는 그 現象, 그런 것을 正確하게 파헤치고 分析하며 提示해 주는 일이 Alain 의 批評特徵이며 이 死者觀이나 祖上崇拜觀에서도 역시 그와 같은 Alain 의 批

\* 文理科大學 佛語佛文學科 教授

※ 이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評特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그와 같은 Alain 의 思想을 몇가지 側面에서 研究코저 한다.

## I. 죽은 사람들은 모두 聖者

Alain 은 우리 人間들, 살아있는 人間들이 죽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죽은 사람들을 보는 方法에서 밝고 意慾的인 面만을 캐내고 또 그것을 내세우고 있다. 그와 같은 것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萬聖節(Toussaint)에 대한 풀이로서의 意味附與다. 즉 그는 萬聖節의 명칭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다 聖者라는 概念을 찾아내어 그것을 指適하고 있다.

*Tous saint, la fête elle-même le dit, puisque la Toussaint est la fête de tous les morts.*<sup>1)</sup>

[祝祭의 명칭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죽은 사람들은 모두 聖者들이며, 萬聖節은 모든 死者들의 祝祭인 것이다.]

Alain 의 죽은 사람들에게 대한 思想은 이 萬聖節에 대한 意味附與, 即 죽은 사람들은 모두 聖者들이라는 풀이와 祝祭에 대한 意味附與에 關聯해서 擴大된다. 萬聖節은 프랑스에서 11월 7일에 行하는 諸聖瞻禮의 행사다. 그런데 Alain 은 萬聖節이 지나는 意味를 여러가지 側面에서 캐보며 健康하고 崇高한 것으로 規定짓는다. 即 萬聖節이 追憶의 時間이라는 點, 敬虔한 追憶으로 된 꿈의 時間이라는 點,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이와 같은 꿈 속에서는 항상 하나의 黃金時代가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는 點을 論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모두 다 聖者라는 理論은 그들이 追憶의 對象이 되고 꿈으로 回想하는 黃金時代 속에서 主人公으로 돌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뒷받침되는 일이다.

어쨌든 Alain 은 偉大하지 아니한 死者는 없다—Il n'y a que de grands morts—고 말하며 死者들이 生者들 속에서 살아나는 過程을 찬란한 것으로 美化하고 있다. 即 우리가 만나게 되는 死者들과의 再會는 死者들의 像이 언제고 純粹한 影像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所有하고자 하는 모든 美德을 지닌다는 것이다. 죽은 者는 모두 다 善人이라는 것이 Alain 의 主張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lain 에게 있어서는 死者들이 生者들에게서 追憶되는 時間에는 그들이 生前에 지니고 있었을 그 어떤 不美스러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단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部分만이 華麗하였던 모습으로 成功的이었던 모습으로 超能力的인 現象으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Alain 은 우리 人間이 죽은 사람들을 回想하므로써 惹起되는 요술과 같은 變化現象을 生理學上의 問題라고 하며 당연한 일로 定義하고 있다. 即 追憶은 아름답고 偉大한 것을 보존하고 추하고 작은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1) Alian, *Sentiments, Passions et Singes* p.160.

그것은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며 또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현상은 사로잡힌 상태에서 卑小하게 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Alain 이 死者들을 모두 다 偉大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人間 모두가 追憶이나 回想을 통해서 갖게 되는 하나의 狀況을 指摘한 일이며 또한 그가 그것을 肯定的으로 讚揚한 일이다. Alain 은 언제나 健康한 것을 두둔하였으며 死者들을 偉大하다고 보는 이 思想 속에도 결국은 그와 같은 主觀이 들어 있는 것이다.

le sentiment d'admirer est sain.<sup>2)</sup>

Alain 이 死者들을 偉大하다고 하는 內容은 死者들을 全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死者들의 美德이 生者들에 依하여 그와 같이 再建되며 그들 生前의 惡德이나 弱點이 지워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現實에 살고 있었을 당시의 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인다는 것이다.

Mais maintenant qu'ils sont hors du monde, à jamais délivrés de faiblesse, de maladie et de mort, nous retrouvons leur pure image.<sup>3)</sup>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지금, 弱點이나 疾病이나 죽음으로 부터 영원히 해방된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들의 순수한 影像만을 再會하는 것이다.]

死者들은 죽음으로써 聖者가 되며 偉大해 진다고 보는 Alain 의 思想은 죽은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美德만이 남을 뿐더러, 死者가 죽음으로써 그가 生前에 지녔던 허다한 弱點과 不美스러운 點 또는 하찮은 野心으로 부터 絶斷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여야만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Je demande que les fautes des morts soient pardonnées.<sup>4)</sup>

[부탁하노니 죽은 사람들의 過誤는 용서해 주라.]

Alain 은 地獄이란 것을 天國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規程짓고 있으며, <地獄이란 산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것인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最惡의 경우라도 죽음으로써 地獄(지옥으로 가게 될 일)을 해소해 버리고 만다.><sup>5)</sup>고 말하였다. 이 內容으로만 보아도 Alain 이 생각하는 死者는 天國에 가까운 인연을 지니며 <아름답고 偉大한 것을 保存하는 追憶>의 對象인 것이다. 死者들이 이미 모든 弱點이나 疾病이나 죽음으로 부터 永遠히 解放된 純粹한 影像에 불과한 그런 現象 속에 서있고 보니 살아 있는 人間들이 그와 같이 <大地로부터 絶斷

2) Ibid, p. 159

3) Ibid., pp. 161~162

4) Ibid., p. 159

된 그런 밑동 위에 우리의 惡德과 弱點을 接木하려고 試圖해 보아도 虛事<sup>6)</sup>라고 한 것이다. Alain은 人間의 回想에 관해서 分析하기를, 回想은 사람 만이 지니는 것으로 回想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것이고 夢想은 즐거운 듯이 이것을 構成한다 하고 있다. 또 그는 記憶과 回想을 比較하여 <記憶은 順應이며, 따라서 나는 각 狀況에 應하는 動作을 배운다.>하였고 <回想은 오히려 順應에 대한 拒否며 人間을 王者의 지위에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意志이다.>라고 한 끝에 <回想하는 사람은 不死의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Souvenir est plutôt un refus de s' adapter, et une volonté de tenir l'homme dans la situation de roi. Qui se souvient fait des immortels.<sup>7)</sup>

따라서 死者를 回想하는 사람은 그 回想 속에서 떠오르는 死者를 不死의 것으로 만들어 낸다는 理論이 되겠다. Alain은 <죽은 사람들은 榮光 속에서 솟아오른다>하였고 <모든 死者는 바로 精神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精神이라는 말의 意味는 그들 死者들의 思念이 우리들 生者들속에 잠자고 있다는 얘기며 바꾸어 말하면 그 思念이 우리를 支配하고 있다는 意味이다. 死者가 精神이라는 말과 아울러 그는 <우리들 生者は 物質이라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表現의 說明을 찾아 볼 때 精神이라는 말로써 表現되는 것의 內容으론 <不滅한 것들의 意見>을 찾을 수 있어서 예컨대 우리들의 思想을 形成해주는 讀書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고 우리들 生者들을 物質이라고 表現하는 理由는 <허다한 偶然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肉體>가 흔들리는 變化에 直面한 可變體라는 內容이기 때문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이와같이 精神이라고 보는 死者들의 思念은 <不滅한 것들의 意見>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 生者들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얘기하고 행동하며 助言할 수도 있고 意慾할 수도 있고 同意할 수도 있고 非難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8)</sup>

死者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思念으로 머무르며 우리들에게 助言을 주는 힘을 지니는 것인데 그 助言의 힘은 그들이 이미 생존하지 않는다는 데서 由來한다. Alain에 依하면 <생존한다는 것은 주변의 世界의 衝擊에 대담하는 일><sup>9)</sup>이며 살아있는 <우리들은 자기가 신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러나 <死者들의 精神은 그 본질상 變化하지 않으며 자기를 背反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5) Sentiments

6) Ibid., p.161. En vain nous essayons de greffer nos vices et nos faiblesses sur ces tiges coupées de la terre.

7) Aliau, Esquisses de l'Homme p.87

8)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181. Les morts ne sont pas morts, c'est assez clair puisque nous vivons. Les morts pensent, parlent et agissent: ils peuvent conseiller, vouloir, approuver, blâmer;

9) Ibid., p.181. Exister c'est répondre aux chocs du monde environnant. nous sommes trop faibles et trop inconstants à nos propres yeux.

따라서 Alain 에게 있어서 死者는, 우리가 死者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자 할 때 우리의 精神이며 靈魂이며 聖者인 것이다.

## II. 祖上和 英雄

Alain 에게 있어서 祖上崇拜觀은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死者를 尊重하고 聖者視하는 데서 비롯된다. 卽 죽은 사람들을 敬愛心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밝은 마음에서 싹튼다.<sup>10)</sup> 死者를 偉大하다고 보며 精神이라고 定義함으로써 Alain 이 說明하는 祖上은 대체로 英雄들의 位階에 있다. 곧바로 英雄들이 아니라라도 超能力을 지닌 偉人들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Alain 은 우리들 살아있는 人間들이 祖上들을 追慕하고 그리워 할 때 그들이 살아 生前에 지녔을 여러가지 弱點을 생각지 못한다는 點을 指摘한다. 그리고 그들이 英雄的으로 살은 黃金時代만을 돌구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Chacun pense l'époque héroïque. Le noble imagine de très Grands nobles, et le notaire imagine de très grands notaires; le militaire remonte à Napoléon, à Turenne, à César, et se voit petit; l'ouvrier dit qu'on ne sait plus travailler, et le syndiqué dit qu'on ne sait plus se dévouer.<sup>11)</sup>

[누구라도 英雄的인 時代를 생각한다. 貴族들은 위대한 大貴族들을 마음 속으로 思慕하고 公證인은 지난날의 위대한 公證人들을 마음 속으로 그린다. 軍人は 나폴레옹을, 튀렌느를, 케사르를 회상하며 자신의 하찮음을 생각할 것이다. 匠人は 往年의 名匠을 따를 자 없음을 한탄하고, 勞動組合員은 主義에 殉하여 몸바칠 자 없음을 한탄한다.]

이와 같이 生者들이 생각하는 祖上들의 影像이란 한결같이 英雄的인 時代를 장식하는 思念이어서 그들 祖上들도 살아 生前에는 역시 現存하는 人間들이나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弱點을 지녔다는 點, 食欲이나 睡眠欲이 왕성하고 強하였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點을 指摘하고 있다. Alain 은 말하기를 그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Le fait est que les héros n'ont plus ni faim, ni soif, ni fatigue.<sup>12)</sup>

[영웅은 배도 고프지 않고 갈증도 느끼지 않고 피곤하는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Alain 이 指摘하고자 하는 것을 明白히 알 수 있다. 卽 우리 人間들은 일반적으로 過去에 살았던 <偉大하였고 아름다웠던 偉人들의 影像을 만든다>는 點, 따라서 <모든 崇拜의 現實的 對象인 祖上和 英雄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였다>는 點이다. 그러나 Alain 이

10) Ibid., p. 181 Nous voyons les morts selon leur vérité, par cette piété qui oublie les petites choses.

11) Alain,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 p. 160.

12) Ibid.,

이와같은 事實을 지적하고 論하는 理由는 그와같은 事實이 우리 社會에 끼치는 有益성과 人間個人에게 주는 發展에 대한 찬양 때문으로 볼 수 있다.

Alain은 우리 人間들이 지니는 誓約에 對해서도 祖上崇拜의 觀念과 結付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人間の 能力과 우리가 생각하는 祖上들의 能力을 比較하고 있다. 卽 우리 人間은 아무리 훌륭한 맹세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努力하는 경우에도 그것에 獻身하는 能力限界가 확실하여 <가장 偉대한 誓約도 한 人間을 잠자지 않고 48時間씩 버티게 하지는 못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祖上の 影像是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고프지 않고 갈증을 느끼지 않고 피로하지 않기 때문에 48時間을 버티는 能力보다 더한 能力도 지닐 것이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하찮은 欲求是 輕蔑해야 될 것이로되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鐵則에 매여있었을 것이라>는 點을 想起시키고 있다. 그러니까<우리는 결코 存在한 바 없는 模範을 본받고 있는 것><sup>13)</sup>이라는 얘기다.

存在한 바 없는 模範이지만, 그 模範은 우리들에게 憧憬의 情을 돌리고 追慕하는 마음을 가꾸어 祖上들을 생각하게 만들며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일이 다름아닌 祈禱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祖上들은 우리들의 模範이 되며, 우리들의 立法者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Alain은 이와같은 祖上崇拜의 觀念에 다시 또 意味를 부여하여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 어떤 자식된 도리로서 지니는 敬虔한 마음으로 위대한 先驅者들 속에서 觀念을 탐색하지 않고는 도저히 觀念이란 것은 얻지 못하리라고 까지 믿는다.><sup>14)</sup>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祖上에 대한 觀念이란 것을 좀 더 자세히 파헤치고 들어 갈 때 Alain이 우리 社會의 倫理觀을 말하고 우리 社會가 動物的인 상태로 떨어지지 않는 理由를 바로 이 祖上崇拜에 대한 想念으로써 說明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옛 發明者나 先驅者들의 天才를 인정하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勇氣를 인정하고 우리 보다 더 큰 正當性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을 神格化하고 그들을 追慕하며 혹은 銅像을 세우고 아울러 祖上들의 偉業을 紀念하는 일의 意義를 바르게 批判하는데 있다. Alain이 강조하는 것은 <偉人들도 우리들처럼 不純하고 멧대로였고 나약하였는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런 것은 따질 거리가 못되는 아무런 意義도 없는 것이라는 얘기다. 만약에 우리가 祖上을 崇拜하지 않고 祖上들의 虛點을 들어 가볍게 본다면 <우리가 模倣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 만이 되는 게 아닌가?> Alain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 감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닌>줄 안다고 하였고 그것이 아무런 教育的인 效果 없는 일이란 것을 證明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不足한 사람이 죽자마자 <子息으로서의 敬虔한 마음이 감탄하는 기쁨에 의하여 그 사람을 再建하는 것이다.> 그래서 祖上들은 子息들에 依하여 美化되고 偉대한 存在로 模範의 對象이 되며 그와 같은 行爲가 커갈수록 生者는

13) Ibid., p. 161. Ainsi nous imitons des modèles qui n'ont jamais existé.

14) Alain, Esquises de l'Homme p. 88, Je crois même que, sans la piété en quelque façon filiale qui cherche des idées dans les grands précurseurs, on n'aura point d'idées du tout.

自己를 卑下하게 마련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 思想은 自己를 卑下함으로써 오히려 不斷히 發展해 나가는 계기를 만든다고 하는 또 하나의 意義를 指摘하고 있는데, 그가 Auguste Comte 의 「死者들의 增大돼 가는 무게」—le poids croissant des morts—라는 말의 引用으로 強調 確認한 것처럼, 〈死者들이 우리 보다 더 賢明하다는 의미로 말한〉이 增大돼가는 무게는 死者들이 혹은 勇氣에 의하여 또 혹은 知性에 의하여 혹은 正義에 의하여 혹은 節度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模範을 제시하며 同時に 壓力을 加한다는 思想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Alain 에 의하면 祖上崇拜思想은 우리 人間社會의 進歩의 源泉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 進歩의 源泉은 숨겨져 있으므로 보이지 않을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Alain 은 다시 祖上崇拜思想에서 祈禱하는 姿勢와 神話概念 따위를 끌어낸다. 卽, 이 思想의 展開로 그는 호메로스의 말을 인용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낫기는 드문 일이다. 대개는 그만 못하다」라는 말을 前提로 내놓고서 이 생각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생각이긴〉하지만 이 생각은 〈모든 것이 차츰 나빠진다는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수법〉이며 또 〈우울한 時期가 우리의 고개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 생각의 結果로서 오게 된다는 論理를 提示하고 나서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現象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指摘하고 있다. 卽 〈그러나 인간은 자기 혼자, 무릎을 꿇는 일이며 스스로를 경멸하는 일이며,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익히고 알아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sup>15)</sup> 고 祈禱의 淵源을 祖上崇拜 思想에 두고 있으며 그와 같은 祈禱의 淵源을 다시 옛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子息들의 敬虔한 마음이 모이는 화롯가에서 形成되는 〈爐邊의 神〉과 一致시키고 있다. Alain 에 依하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祈禱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자주 생각하는 일이며 생각하는 일은 그들을 존경하는 일이며 따라서 神話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것이라고 規定짓고 있다. 이와 같은 思想에서 그의 紀念祭에 관한 思念이 形成되는 것으로 믿는다.

### Ⅲ. 紀念祭와 紀念物

Alain 의 死者觀을 좀 더 詳細히 파헤치기 위해선 紀念祭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듬어 보아야 될 것 같다. 例컨대 萬聖節에 대한 그의 생각, 萬聖節은 모든 死者들의 祝祭라고 하는 생각이며 紀念祭의 原理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強壯劑인 藥効로 보는 풀이, 紀念祭를 生者들의 死者에 對한 열렬한 追慕의 情의 표시라고 하는 解釋等等이 그런 것이다.

앞에서도 보아 온 일이지만 Alain 은 生者가 死者를 對하는 意義를 항상 建設的이고 밝은 側面에서 必然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萬聖節을 死者들의 祝祭〉로 規定하는 일만 보더라도

15) Alain,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 pp.160~161 Croyez bien que l'homme a trouvé tout seul de se mettre à genoux, de se mépriser lui-même, et de prier pour les morts.

벌써 確然하지만 Alain 이 指摘한 祝祭나 紀念祭에서는 死者가 함께 呼吸하며 社會를 밝게 만들고 뜻있게 만들며 未來志向의이다.

Alain 의 思想으로 볼 것 같으면 죽은 사람들과 연관되는 모든 紀念祭가 슬픔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기쁨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한 수단인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哀悼 悲痛을 表示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항상 행복을 喚起시키고 산 사람들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必要手段인 것이다. 그러므로 Alain 에 依하면 宗教的인 祭式에 부여하는 價値는 우리들 산 사람들의 思念의 흐름을 뜻있게 하고 거기에 아름다운 夢想을 덧붙이기 위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꽃들이며 화환들이며 꽃으로 장식된 무덤들은 그것들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일로써 산 사람들의 思念의 흐름을 결정짓는 일이 된다는 것이다.<sup>16)</sup> 그런 것들로 하여 夢想이 싹트고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祭祀에 대한 觀念을 Alain 은 죽은 사람들을 불러내는 儀式으로 보았고 죽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절차로 보았으며, 죽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꽃을 가지고 가는 行爲 即 奉獻物을 바치는 行爲를 죽은 사람들과의 對話繼續을 위한 방편으로 보았다.

Toutes les offrandes ne sont que pour tourner nos pensées vers eux et mettre la conversation en train.<sup>17)</sup>

그러므로 Alain 은 우리들의 생각을 죽은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對話를 繼續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祭祀나 紀念祭의 始源을 傳說에 連關시키고 있으며 그와 같은 傳說 속에서 精神의 自覺을 誘發시키는 人間의 知慧를 찾아내고 있다.

傳說에 關한 Alain 의 생각은 그것들이 季節과 一致한다는 觀念이다. 人間들이 모두 한명어리가 되어 크나큰 存在를 형성하고, 그 크나큰 存在의 움직임이 季節과 合致하며 傳說과 合致하며 또 가장 확실한 知識에 까지도 合致한다는 것이다. 即 天文學만이 가려 낼 수 있는 징후와 일치한다고 指摘한다. 가령 復活節은 새싹들과 가장 먼저 핀 아네모네 꽃에 의하여 잔치의 신호를 받게 된다는 指適, 謝肉祭는 아이러니와 懷疑로 뒤섞인 傳說이긴 하지만 그래도 季節과 합치한 어떤 人間思想의 흔적이 엿보인다고 하는 定義, 또 크리스마스는 눈[雪]이 나린 긴긴 밤이 계속되는 계절, 모든 것이 슬픔을 지닌 계절, 感覺이 억압되는 계절에, 自然感情을 극복하고 모든 外的인 神들을 克服하며 思考가 集中되어 認識이 意志로 化하여 보다 확실한 想念과 한층 더 섹섹한 希望과 되새기는 救世主의 탄생을 祝賀하는 傳說이라는 풀이

16) Alain: Propos sur le Bonheur p.181. Cela n'empêche point que les fleurs, les couronnes et les tombes fleuries aient un sens. Comme nous ne pensons pas comme nous voulons, et que le cours de nos pensées dépend principalement de ce que nous voyons, entendons et touchons, il est très raisonnable de se donner certains spectacles, afin de se donner en même temps les rêveries qui y sont comme attachées. Voilà en quoi les rites religieux ont une valeur.

17) Ibid., p. 180.



그런 것이다.

이와 같은 Alain의 해석은, 卽 傳說과 季節의 合致를 主張하는 그의 論調는 그와 같은 合致가 都市와 法律과 風習의 起源을 나타내는 것이며, 先史的인 祭典과도 一致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봄의 祭典인 復活節 잔치의 信號라고 한 아네모네 꽃과 아도니스(Adonis)와의 상관관계를 두고 確證되는 얘기일 것이다. Alain은 말하기를 <이 봄의 祭典은 항상 어떤 架空的人物, 이를테면 Adonis의 기념에 결부되어 있었음을 주의하라.>고 하였다. 아도니스는 古代神話 中の 人物로 美青年이다.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아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그러나 제우스 神은 女神 아프로디테의 소원에 의하여 그를 아네모네로 化해 놓았다. 그래서 그 후로 아도니스는 美青年의 典型이 되었으며 또한 開花의 象徴이 되었다. Alain에 依하면 이와같이 우리가 누리는 祭典은 人間思想의 흔적이며 또 植物에게나 動物에게나 人間에게나 共通인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다. 여하간 Alain은 紀念祭等 祝祭에서 傳說과 季節의 合致를 發見하며 그것을 우리 人間들이 幸福을 찾고 삶의 發展을 찾으려고 한 努力의 흔적으로 읽은 것은 사실이다.

*Mais il faut admirer, en tous les temps et en tous les peuples, comment la commémoration des héros s'accorde avec la célébration des heureuses saisons d'après leurs premiers signes.*<sup>18)</sup>

[그러나 모든 時代에 걸쳐, 그리고 모든 民族을 통하여, 英雄들을 기념하는 行사가 그 최초의 徵候에 의하여 幸福한 季節을 축하하는 행사와 어찌면 그렇게 일치하고 있느냐는 것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紀念祭에서 우리는 Alain의 死者觀의 健康性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또 우리는 紀念物에서 Alain의 祖上崇拜觀에서 비롯되는 人間社會의 定義를 찾기로 한다. Alain은 자주 이 紀念物에서 人間과 動物의 差異를 論하는데 과연 人間社會는 이와 같은 紀念物으로써 그 價値가 얼마나 定義될 수 있을 것인지. Alain은 人間社會를 꾸미는 것은 別種의 遺産이라 하였고 그 遺産들이란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그 어떤 支配와 같은 것이라 하고 있다. 卽<그것은 집이며, 神殿이며 廟이며 샅이며 차바퀴이며 톱이며 활이며 境界標이며 碑銘과 書籍이며 傳說이며 禮拜와 像과 같은 것>이라 한다. Alain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紀念物로 포괄하였고 紀念物이란 모든 動物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後世에 存續하여 다음 世代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規定짓고 있다.

다음 世代를 교육한다는 말은 그 紀念物들에게서 싹트는 祖上들에게 대한 敬意며 또 그 紀念物들을 통하여 <敬虔한 마음으로 위대한 先驅者들 속에서 觀念을 탐색한다>는 뜻이며 <子息된 마음의 敬虔性이 기쁨을 가지고 祖上을 再建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Alain은 <動物도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들 이상으로 自然의 祭典을 祝賀한다>고 指摘하며 심지어

18) Alain, Esquisses de l'Homme p. 60.

는 <아네모네나 오랑캐 꽃도 티티새나 피꼬리 못지 않게 봄을 축하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順應現象이며 <그들이 紀念을 하지 않고 紀念物을 만들지 아니하며 彫像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Alain은 이와 같은 紀念物과 상관하여 그것이 이미 存在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能力이라고 말하였으며, 그와 같은 能力이 아니고는 思考라고 할 수 없다고 斷定한다.

現存하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社會를 과연 社會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反問하며 Alain은 紀念物에 대한 考察을 자주 引用하는 Auguste Comte의 思想考察方法으로 代置하여 Comte가 <마침내는 죽은 자에 대한 崇拜로 社會를 定義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하므로 그의 考察方法을 想起시키고 있다. 이것은 Alain이 우리 人間社會를 죽은 사람과 결부시켜 생각하므로써 보다 進歩시키고 發展시키며 祖上崇拜로 아름다운 感動을 크고 뜻있는 것으로 하여 <敬虔한 마음이 감탄하는 기쁨에 의하여 祖上을 再建하고> 이와 같은 기쁨으로써 <本質的인 慰安>을 삼는다는 思想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 IV. 人間과 動物

Alain은 人間社會를 죽은 자에 對한 崇拜로써 定義하며 動物的인 社會라는 것이 存在할 수 없음을 對比로써 말하므로 祖上崇拜 思想을 論하고 있다.

即 Alain은 動物들이 自然의 祭典을 누릴 줄 알고 또 人間이나 마찬가지로 좋은 記憶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紀念을 하지 아니하며 紀念物을 만들지 않는다는 點을 指摘하므로써 人間이 지니는 것과 同等한 社會를 營爲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Alain이 즐겨 引用하는 Auguste Comte의 思想을 빌어 말하자면 우리 人間社會는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지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 社會는 發展하고 바람직스러워진다는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지배한다>는 말은 祖上崇拜思想과 關聯되는 말이며 산 사람들이 만드는 紀念物과 같은 것, 表徵이니 또는 信仰이니 禮拜니 하는 것에 依하여 밝혀지는 말로써 動物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일이며 그들에게 있어서는 <祖上은 죽기가 무섭게 잊혀지고 마는 것이다>고 한다.

Alain에 의하면 <어느 개미고 한 마리의 개미로서 해야 할 일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로는 개미가 예전에 죽은 어느 傑出한 개미에게 敬意를 표한다는 일은 없다>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말(馬)은 자기의 身體構造에 따라 달리긴 하지만, 달리는 말의 그림을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서서 생각에 잠긴다는 일은 절대로 볼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돌을 쌓아올려 만든 무덤 앞에 동물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없다><sup>19)</sup>는 것이다.

19) Alain, Esquisses de l'Homme pp. 87~88.

Alain은 人間이 動物보다 優秀하고 훌륭한 점은 祖上을 생각하고 祖上에게 敬意를 포함 줄이는 일, 또는 傑出한 先人들을 追慕하며 무덤을 만들어 紀念하는 일로써 說明한다. 그러니까 말이나 코끼리가 서로 모여서, 紀念建造物이나 記錄이나 儀式등을 행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런지 모를 일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런 일을 못하므로 社會를 이룩할 수 없으며, 꿀벌이 벌통을 만든다고 하여 社會를 이룩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協力은 아직 社會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꿀벌은 몸의 형태에 따라 行動할 뿐 그 構造에 의해서 行動되는 行爲는 不知中에 行하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한 行爲가 <表徵을 앞에 놓고, 信仰과 禮拜에 의하여 行動될 때, 참다운 主義를 가지며, 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만약 꿀벌이 이와 같이 참다운 主義를 가지고 생각하는 存在로 보이게 하기 위해선 <넓은 벌통이 禮拜의 對象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지배할 필요가 있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Alain이 말하는 Auguste Comte의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지배할 필요에 對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Alain은 이 지배에 관해서 똑바로 알아차리라고 하였다. 卽, 이 지배는 <傳承된 構造에 의존된 支配가 아니고, 神殿이나, 道具나, 圖書館따위 衣服에 의한 支配이다>라는 것이다. Alain은 衣服에 대한 觀念과 習慣에 대한 觀念에 있어서 그것을 <衣服은 習慣이다>라고 하는 대신 <習慣은 衣服이다<sup>20)</sup>>라고 말하고 싶다, 하였으며 그가 社會를 이룩하는 것으로 본 記錄이나 紀念建造物 따위를 모두 習慣 衣服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衣服으로서의 神殿이며 紀念物들이 죽은 사람들에 依하여 價値를 발휘하고 그들 죽은 자들의 崇拜心에서 싹트는 것으로 보는데서 죽은 자가 살아 있는 자를 支配할 필요를 強調한 것으로 본다.

Alain은 人間の 歷史를 表徵의 歷史라 하였으며 또 그것을 바꾸어 말하여 崇拜의 역사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表徵에 依하여 우리들의 精神이 證明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그는 이것을 證明키 위하여 動物을 例로 <그들에게 缺如되어 있는 것은 表示를 숭상하는 일이며, 儀式이나 맨스로 餘暇를 보내고 거기에서 表徵을 교환하는 일이며, 表徵을 만들어내는 墓앞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돌을 한 개 덧붙이는 일>이라고 하였다. Alain은 또 <精神이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發見할 수 있는 것은 傳說의 集合體와 죽은 자들의 評議會이며 있는 그대로 말하여 迷信의 集合인데 이 集合이야말로 宗教를 만드는 것이고 또한 이것 없이는 어떠한 증명도 없다><sup>21)</sup>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Alain에게서 證明되는 人間の 歷史며 精神의 所在를 죽은 자가 산 사람들에게 미치는 影響이나 또는 산 사람이 죽은 자들 속에서 찾아내는 意味로써 發見케 된다.

코끼리나 말이나 늑대에게 缺如되어 있던 것은 아마도 廟라든가 神殿이라든가 劇場같은 것

20) Alain, Esquisses de l'Homme p. 31.

21) Ibid., p. 86.

을 짓고 그 들레나 또는 그 안에 모여드는 그와 같은 餘暇를 갖지 못하는 일, 그것 뿐이었을 것이라고 한 Auguste Comte의 思想을 대단히 인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指摘한 Alain의 생각은 그것이 動物世界에서 죽기가 무섭게 잊혀지는 祖上에 對한 觀念을 具體적으로 說明하는 方法이었을 것이며, 人間의 觀念과 動物의 觀念의 差異를 有機적으로 例示하며 祖上崇拜 思想에 歸一시킨, 또는 이미 가버린 先人들에게 쏟는 追慕心으로 區分지어 본 方法 思想이라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動物을 人間과 區分하여 規定 지은 Alain의 思想을 確認해 볼 필요를 느낀다.

Je reviens à ce beau mythe de Comte, qui est, il me semble, ce que l'on a dit de mieux sur nos frères inférieurs. Il leur manque de réfléchir, ou, si l'on veut, de contempler. Toutes les marques de l'intelligence pratique, ils les offrent; ils sont ingénieux, rusés, marqués d'expérience. Ils ont une sorte de langage en ce sens que, si un corbeau s'envole, tous s'envolent. Il leur manque d'adorer les signes. Il leur manque de les échanger dans le loisir d'une cérémonie ou d'une danse; il leur manque de s'arrêter devant le tombeau, père des signes, et d'y ajouter une pierre. Il leur manque le respect, ou si l'on veut, la politesse qui fait que l'on se retient d'agir; enfin cet accord de politesse qui fait que l'on forme ensemble une idée, d'ailleurs fausse.<sup>22)</sup>

[콩트의 저 아름다운 神話로 돌아가자. 생각컨대, 이것은 우리들의 劣等한 형제(동물)에 대하여 이야기 될 最上의 것이다. 이 형제에게는 반성하는 일, 靜觀하는 일이라 해도 좋지만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다. 實踐的인 知性이라면, 그들은 그 모든 표시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영리하고, 策略도 있고, 經驗도 또한 풍부하다. 그들은 한 마리의 까마귀가 날면, 모두 다 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言語를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表示를 숭상하는 일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儀式이나 맨스로 여가를 보내고, 거기에서 표정을 교환하는 일인 것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표정을 만들어 내는 墓앞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돌을 한 개 덧붙이는 일이다.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行動에서 몸을 이끄는 尊敬인 것이다. 禮儀라 해도 좋다. 요컨대, 사람이 한덩어리가 되어 한 개의 觀念을, 그것은 잘못된 觀念이긴 하지만 그것을 만들게 하는 저 禮儀바른 一致인 것이다.]

Alain은 <現存하는 것만으로 형성되는 社會를 과연 社會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質問으로 動物社會의 社會性 認定문제를 말하였으며 結局은 <죽은 자에 대한 숭배로 社會를 定義하기에 이르렀다>고 Comte의 思想을 내세우므로써 眞正한 社會의 意味를 祖上崇拜思想으로써 結論짓고 있다.

## V. 東洋思想과의 對比

Alain의 死者觀乃至는 祖上崇拜觀을 東洋思想의 그것과 對比해 볼 때 우리는 거기서 몇

22) Ibid., pp. 85~86.

가지 共通點과 相違性을 찾게 된다. 卽 共通點은 死者나 祖上을 잊어버리지 않고 尊崇한다는 일이며 그것으로 生者의 價値를 삼는다는 點이고 相違한 點은 死者나 祖上에 對한 尊崇의 意味附與의 態度觀念이다. 말하자면 東洋思想이 報恩觀에서 싹트는 義務感이며 그위에 세워지는 倫理思想인데 比하여 Alain의 思想은 그것이 受動的인 倫理와는 달리 生理的인데서 싹트는 自生的인 生態로서의 價値附與인 點이다. 그러니까 東洋思想은 多分히 그것이 人間에게 賦課되는 行動規範인데 比하여 Alain 思想이 指適하는 意味는 生者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生態的인 意志로서의 美化인 것이다.

먼저 共通點에서 살펴 볼 때, 무엇보다도 재미있는 것은 人間價値의 規定으로 人間을 動物과 區分하는 點이다.

Mais l'ancêtre est oublié dès qu'il est mort. On le recommence, sans penser jamais a lui.<sup>23)</sup>

仲尼曰 丘也 嘗使於楚矣 適見狔子食於其死母者 少焉 陶若 皆棄之而走<sup>24)</sup>

動物들은 그 祖上이 죽기가 무섭게 그 시체를 내버리고 잊어버린다. 이 事實의 指摘은 東洋의 文籍에서는 天地之間萬物之中에서 最貴한 것으로 人間을 꼽는 理由이었으며 Alain 에게 있어서는, 人間만이 진정한 社會를 지닌다는 그 社會構成 性格의 說明理由이었다.

人間이 人間으로서 價値로운 것은, 死者를 尊重하며 祖上을 崇拜하는데서 비롯된다는 생각, 이것을 뒷받침하는 思想으로는 祭祀와 紀念式과 葬禮를 行事로서 崇尚하는 마음과 또 神殿이나 廟와 같은 紀念物을 築造하고 그것들을 통하여 先人에게서 模範을 確立하며 훌륭한 祖上の 像을 再建하는 敬愛心을 가꾼다는 點이 共通된 焦點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은 思想의 表現方法으로서의 儀禮에 관한 解釋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첫째로 눈에 떠는 差異點은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東洋思想의 祭禮表現이 개인의 行動規範과 關聯되는 遵守原則같은 것인데 比하여 Alain의 思想은 이미 있어온 慣習이나 民間傳說 또는 祝祭行事에 대한 意味附與로서의 人生批判이다. 때문에 그 觀點은 東洋思想이 細部的인데 比하여 Alain의 批判은 全般的인 어떤 通念을 形成하고 있다. 가령 葬禮에 있어서의 哀悼를 比較해볼 때 <論語>를 위시한 東洋書의 거개가 그 形式的인 法道를 論하며 格式과 基準을 論하고 있는데 比하여 Alain은 masse(總體)로서의 對象을 論하며 그 對象들에게서 發見되는 內在性을 論하며 格式과 基準을 論하고 念을 집어내어 理論化하고 또한 眞理守則을 만드는 것으로 본다.

論語에서 禮의 本에 관한 물음에 答하기를 <禮는 사치스럽기 보다는 검소한 쪽이 나으며

23) Ibid., p. 83.

24) 『莊子』 德充符.

葬禮式은 막힘없이 집행하기 보다는 哀悼의 情이 표시되도록 행해져야 한다<sup>25)</sup>고 하였고 <공자께서는 상제 옆에서 음식을 드실 때에는 결코 배부르게 잡숫지 않으셨다. 공자께서는 그날 장사 집에 가서 곡하셨으면 종일 노래하지 않으셨다<sup>26)</sup>고 한 것은 바로 東洋思想에서의 對死者觀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多分히 生者에 對한 葬禮遵則과 有關하다. 東洋의 禮法이 이처럼 葬禮遵則의 性格을 띄우기 때문에 그 死者觀 역시 根本的으로는 對死者 關係性으로 濃度가 決定되는 느낌이 強하며 <죽은 사람을 위해 곡하고 상복을 입는 예이라든가, 친소에 의한 상복의 여러규정<sup>27)</sup>들이 民間禮法에서 敎示的인 準則이 되어 있는 點은 特記할 일이다. 때문에 東洋的인 解釋은 조금도 生態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어느 모 強制的인 義務感으로 肉迫하기도 한다. 孔子와 宰予의 問答에서 우리는 父母 三年喪에 관한 禮道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은 人間의 道理로서 要求하는 死者觀이다.

재여가 여쭙었다.

「삼년상(三年喪)은 일년상으로 단축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군자가 三년이나 예(禮)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예는 필연코 붕괴되고 말 것이며, 三년이나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도 반드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난해 곡식은 다 없어지고 새해의 곡식이 익으며, 나무를 마찰시켜 불을 다시 만드는 것처럼, 1년마다 모든 것은 바뀌는 것이니까, 1년으로 단축해도 좋을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돌아가신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걸치는 것이 너에겐 기분이 좋으나.」 재여가 말씀드렸다.

「기분이 좋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분이 좋다면 뜻대로 하려므나. 대저 군자가 상을 입는 동안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에 달지 않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고, 집에 있어도 편안치가 않으므로 그런 일을 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서도, 기분이 좋다면, 네뜻대로 하는 것이 좋다.」

재여가 물러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재여는 경이 없구나. 애는 태어나 3년이 되어야 부모의 품을 떠날 수 있나니, 그러기에 삼년상은 천하에 통용되는 예(禮)다. 재여도 역시 부모로부터 3년 동안 사랑을 받았으련만.」<sup>28)</sup>

이처럼 東洋의 對死者 道는 克己며 節制하고 自制하는 길이기도 하다. 안에서 스스로 좇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밖에서 주어지는 抑制며 峻嚴한 君子道인 것이다. Alain思想에서 우리가 엿보는 崇高性도 比喩해 表現하자면 一種의 君子道이려니 생각하여 東洋的인 思考와의 共通性을 發見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解釋하는 根元이 自律的이라고 본다.

Il n'y a point d'autre piété envers les morsque de penser bien d'eux.<sup>29)</sup>

25) 『論語』 八佾篇四 「子曰 大哉 問禮 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26) 『論語』 述而篇九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 子於是 日 哭則 不歌」

27) 『莊子』 天道 「哭泣衰經隆殺之服」

28) 『論語』 陽貨篇 「宰我問 三年之喪 期已久矣 君子三年 不爲禮 禮必壞 三年 不爲樂 樂必崩 舊穀既沒 新穀既升」

29) Alain, Sentiments p. 159

Alain은 教會에서 行하는 葬禮式에서는 悲痛이 가려지고 樣式化되어서 적절한 形式 아래 이별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Mais la cérémonie funèbre ne tend point là. Tout au contraire, la tristesse y est habillée et stylée, et les adieux sont faits par d'autres dans les formes convenables.<sup>30)</sup>

Alain은 죽음에 대한 공포며 또는 葬禮에 臨席한 會葬者들의 자연스러운 情動이 풀리는 結果며, 그런 것을 想定하고 거기에서 招來되는 悲劇을 막는 方法으로서의 聖歌隊나 또는 追悼演說의 價値를 論하고 있다. 그러니까 Alain의 儀禮觀은 死者를 對하는 生者들의 마음의 편안함을 目標로 하는 解釋이다. 말하자면 死者들로 因하여 生者가 빠지는 슬픔 또는 공포 따위 모든 좋지않은 情動을 막아주고 緩和해주는 手段으로서 禮式, 儀禮를 보고 있다. 따라서 Alain의 解釋은 우리의 生活樣式과 習慣 禮法等 모든 制度가 對死者關係에 있어서 死者와 生者와의 相關關係의 親近度를 增進시키고 그 疏遠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比하여 東洋的인 哀悼는 <爲禮不敬 臨喪不哀 吾何以觀之哉><sup>31)</sup>라 하여 絶對的이고 人間의 편안함이나 生活의 便利가 優先되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例示한바 孔子의 말씀이 <禮는 사치스럽기 보다는 검소한 쪽이 나으며 장례식은 막힘없이 집행하기 보다는 哀悼의 情이 표시되도록 행해져야 한다><sup>32)</sup> 하였고 孝에 對해서는 <子曰, 父在 觀其志 父沒 觀其行 三年 無改於父之道 可謂孝矣><sup>33)</sup>라 하였으니 禮를 지키는 道와 行實을 바르게 지키는 法道가 對死者 또는 對祖上尊崇에 있어서 生者の 生活을 拘束하고 制限하는 쪽으로 强하다.

## 結 論

우리는 Alain이 생각하는 死者觀과 祖上崇拜觀을 몇가지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지금 이것을 마무리지어 볼 때 Alain이 생각하는 死者는 結局 生者の 創造物이라는 것으로 歸結되며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며 살아 남아 있는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찾아낸다. 즉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던 바를 生者들의 生命이 풍부하게 展開해주시 願함으로써 生者들 속에 살아 있고, 이와 같은 死者들의 增加해 가는 무거운 結局 우리의 生存을 더 낮게 規制하기 위한 手段이란 것을 엿보게 한다. 그리하여 死者崇拜의 功德과 더불어 사람의 마음속에 慰安을 주기도 하며 죽은 사람에 대한 崇拜가 人間의 진실한 典型을 出現케 해줌으로써 過去에 뛰어났던 人物들과의 同化를 맹세케 해주는 强壯劑 役割을

30) *Éléments de philosophie: Livres septième Des Cerémonies Chapitre De l'architecture* p. 358.

31) 『論語』爲政篇 26.

32) 『論語』八佾篇 4.

33) 『論語』學而篇 11.

하기도 한다는 思想을 깨닫게 한다. 要컨대 Alain의 死者觀이나 祖上崇拜觀은 生者들의 生活을 發展시키기 위한 手段方法에서 삭트는 生態적인 現象이며 人間을 王者의 位置에 놓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指摘 規定된 人間素描의 한 側面으로 보이는 思考의 斷面이다.

## 參 考 文 獻

### I. Alain의 作品

Propos sur le Bonheur 1925, Gallimard  
 Sentiments, Passions et Signes 1926, 1935, Gallimard  
 Esquisses de l'Homme 1927, Gallimard  
 Les Dieux 1934, Gallimard  
 Propos sur la Religion 1938, P. U. F.  
 Propos de littérature, P. Hartmann  
 Les Passions et la sagesse, P. Hartmann  
 Les Arts et les Dieux, P. Hartmann  
 Propos sur l'éducation,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Les Idées et les Ages, Gallimard  
 Esquisses d'Alain I Pédagogie Infantile, P. U. F.  
 Esquisses d'Alain II La conscience morale, P. U. F.  
 Esquisses d'Alain III La recherche du bonheur, P. U. F.  
 Esquisses d'Alain IV Dialectique des sentiments, P. U. F.  
 Eléments de Philosophie 1941, Gallimard  
 Histoires de Mes Pensées 1936, Gallimard

### II. 기타 文獻

André Maurois, Alain, Gallimard  
 André Maurois, De Proust à Camus, Académique Perrin  
 Georges Pascal, La pensée d'Alain, Bordas  
 清水幾太郎, オーギュスト・コント, 岩波書店  
 大修館刊, フランス文學講座, 思想・批評  
 車柱環역, 孟子, 乙酉文化社  
 車柱環역, 論語, 乙酉文化社  
 世界思想大全集 1. 佛典, 大洋書籍  
 " 2. 孔子・孟子, "  
 " 11. 老子・莊子, "